

이스라엘은 학살을 멈춰라!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가자 학살 2년: 10·12 전국 집중 행동의 날 함께해 주세요

2023년 10월 7일 시작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은 지상군 투입과 점령, 인종 학살, 가자지구 초토화, 의도적 굶주림과 질병 조장으로 이어지며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인 6만 6000명이 목숨을 잃었고, 16만 8000명 이상 부상 당했습니다. 건물 잔해 밑에 깔려 수습하지 못한 실종자도 많습니다. 희생자들 다수는 여성과 어린이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인종 학살을 자행해 온 이스라엘이 이제 가자 지구 최대 도시인 가자 시티 점령을 위해 지상군을 투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상 작전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은 대규모 피난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안전 지대”라며 민간인들을 몰아 넣은 지역에서도 학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월 1일, 이스라엘은 “안전 지대”라고 말한 가자지구 중부의 한 병원을 폭격해 기자를 비롯해 수십 여 명을 살해했습니다.

이에 더해 이스라엘의 구호품 봉쇄로 가자지구 주민 대부분은 극심한 식량난에 처해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가자지구 인구 3분의 1이 하루 종일 아무 것도 먹지 못하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기아에 더해

이스라엘의 의도적 병원 공습과 의료진 살해로 보건 의료 체계와 인프라가 파괴되어 질병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저항과 연대

이미 가자지구는 85퍼센트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서안지구에서도 이스라엘군과 이스라엘 정착자들의 폭력이 급증하는 등 ‘느린 인종 학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상을 향한 전 세계적 분노 앞에서 서방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체합니다. 서방 국가들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 한다면서도 이스라엘의 만행을 막을 어떠한 제재나 무기 지원 중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이스라엘에 막대한 군사 원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가자 휴전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상 팔레스타인인들의 자결권을 무시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통제하는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유엔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찬성표를 던지면서도 정작 이스라엘에 제동



을 걸기 위한 어떠한 실질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對이스라엘 무기 수출 등 모든 교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매일같이 만행을 벌이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식민 점령에 맞서 지난 77년 동안 저항해 온 팔레스타인인들은 굴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연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봉쇄를 뚫고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 가자 지구에 접근한 ‘가자구호선단’을 이스라엘군이 공격하자 영국, 이탈리아, 튀르키예 등 세계 곳곳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2년 동안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팔연사)은 매주 서울 도심에서 집회와 행진을 개최해 왔습니다. 한국인들, 재한 팔레스타인인들, 아랍인들 그리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에 항의해 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부산, 인천, 대구, 울산, 광주, 수원, 원주 등에서, 그리고 여러 대학과 학교에서도 연대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최근에는 보건의료인들과 교사들이 가자 학살 규탄 성명 발표 등 연대에 나섰습니다.

얼마 전, 가자지구 현지의 기자 무함마드 알카티브 씨는 ‘팔연사’가 주최한 포럼에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가자를 홀로 두지 마십시오. 세상을 속이려는 이

스라엘의 서사에 맞서 목소리를 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연대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하고 내쫓으려는 이스라엘에 함께 항의합시다.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역사적 팔레스타인 땅) 팔레스타인이 해방될 때까지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합시다!

10월 12일(일) 오후 2시 ‘가자 학살 2년 10.12 전국 집중 행동의 날’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은 인종학살 멈춰라!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해!

가자 학살 2년

10.12

전국 집중 행동의 날

🕒 10월 12일(일) 오후 2시
📍 서울 열린송헌녹지광장 입구 (안국역 1번 출구)

- 재한 팔레스타인인들이 참가하고 사회자와 연설자로 나섭니다.
- 아랍어·영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한국어 통·번역 제공
- 집회 후 이스라엘 대사관 방면 행진
- 여러 지역에서 집회 참가 버스 운행 예정

1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후원 계좌: 신한은행 110-173-517650 (예금주 최명준)

보내 주신 후원금은 연대 행동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행진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문의: 010-7550-2131



재한 팔레스타인인, 중동·북아프리카인 등 여러 이주민, 한국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합니다